

무용에서의 질적 탐구: 질적 연구 방법의 소개

전영국

순천대학교 컴퓨터교육과/환경융합예술학과 교수

ycjun@sunchon.ac.kr

010-9910-334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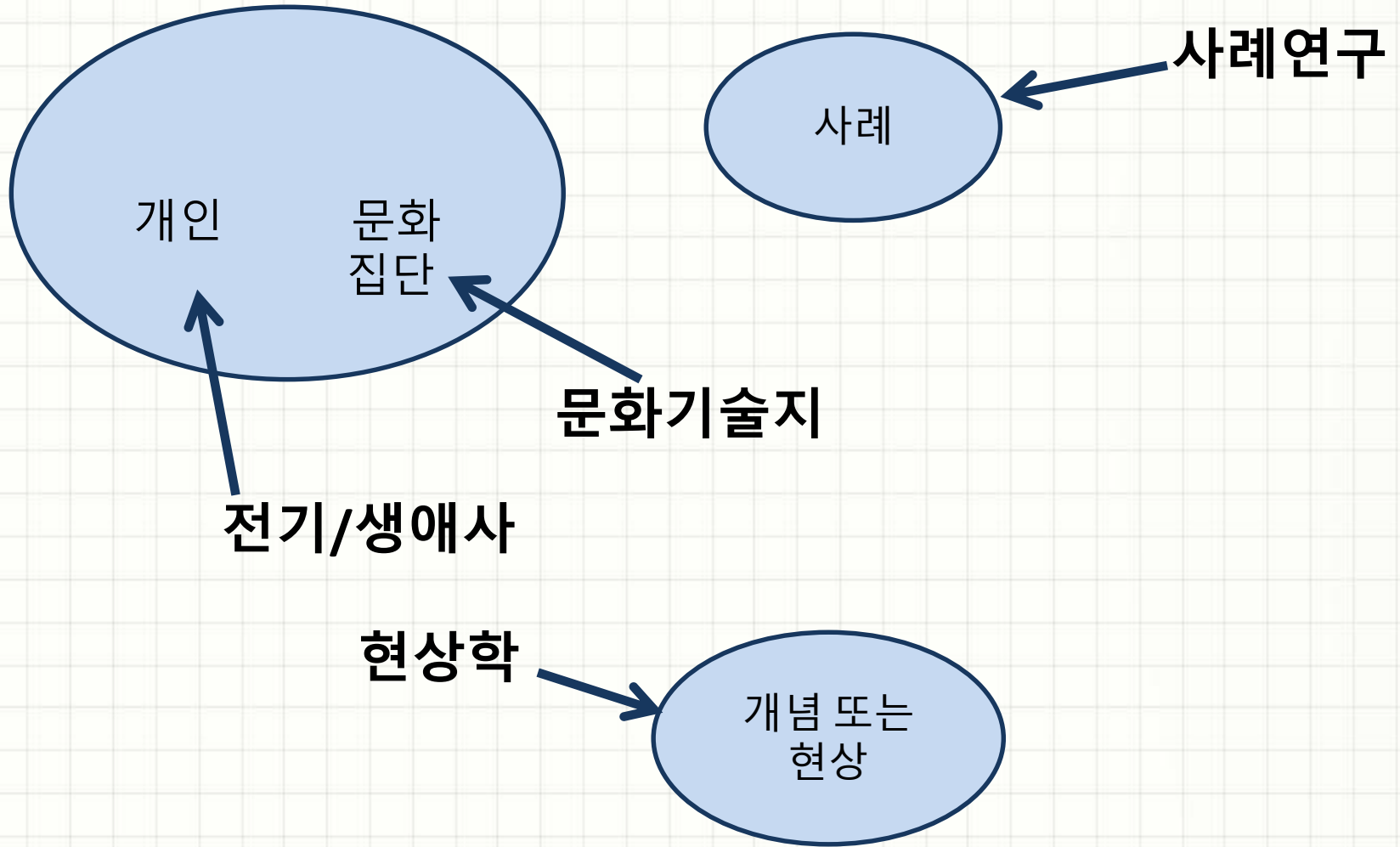
두루미과학예술센터장

2021년 2월 20일

질적 연구는
인간(의 몸)에 대한 탐구를 다루는
분야이다.

무용 분야에서 인간(의 몸)에 대한 탐구란?

질적 연구 방법 개괄



질적 연구의 개괄

전기 및 생애사: 개인의 삶과 경험에 관한 연구 - 주요 사건, 경험에 대하여 시간 순서대로 참여자가 구성하여 말하는 방식, 사회 문화적 맥락과 연결

문화기술지: 문화적 집단 또는 체계에 대한 기술과 해석 - 현장에서 문화와 관련된 참여자와 면담 진행

현상학적 연구: 특정 현상을 다루기 위하여 여러 개인들의 체험에 대한 의미 기술 - 면담 진행 (예, 춤추는 즐거움, 아름다움...) - 본질적 구조 파악

근거이론: 이론을 정립하기 위하여 주제에 대한 면담 진행 (데이터 포화)

사례연구: 경계지어진 체계 또는 (공연) 사례를 탐색, 자연적 일반화 추구

질적 탐구의 세계로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설문 - 구술 설문

대화 - 면담, 관찰

다루고자 하는 자료의 유형

설문, 구술 설문, 대화, 면담의 차이점

관찰, 참여 관찰의 차이점

필드노트, 메모, 사진 촬영, 비디오 자료

설문지 사용: 만들기와 분석

설문지를 만들 때 설문 문항을 작성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조사 대상이 되는 주제에 맞게 묻고자 하는 질문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던져야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설문 문항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

수집된 설문 자료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통계분석 방법은 빈도, 평균, 교차, 상관, 분산, 회귀, 요인 분석 등이 있다.

질적 연구 방법의 비교

특성	전기 연구	현상학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초점	개인의 인생을 탐색	경험의 본질을 이해	현장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이론을 개발	문화공유집단을 기술하고 해석	단일 사례나 여러 사례에 대한 심층 기술과 분석을 전개
설계에 가장 적합한 문제 유형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자 할 때	체험한 현상의 본질을 기술하고자 할 때	연구참여자의 관점에서 근거 이론을 개발하고자 할 때	문화의 공유된 패턴을 기술하고 해석하고자 할 때	단일 사례나 여러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할 때
학문 배경	인류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심리학, 사회학, 인문학	철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법학, 정치학, 의학

질적 연구 방법의 비교

특성	생애사 연구	현상학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분석 단위	한 명의 개인을 연구	경험을 공유해 온 여러 개인들을 연구	많은 개인들이 관여하는 과정, 행동, 상호작용을 연구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을 연구	사건, 프로그램, 활동, 한 명 이상의 개인을 연구
자료수집 형식	주로 면접과 문서 활용	주로 개별면접이지만, 문서와 관찰, 예술작품도 활용될 수 있음	주로 20~30명 정도의 개인들과 면접	주로 관찰과 면접을 활용하지만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자료원들을 수집	면접, 관찰, 문서, 인공물과 같은 다양한 자료원들을 활용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용 분야에서 질적 연구 방법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무용 분야와 같이 예술 분야에서
질적 연구 방법을 차별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질적 연구에서 면담 사용에 관한 이슈

내러티브 탐구: 경험을 이야기 형태로 말하는 것, 허구 또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문서 등도 이야기형태로 표현하는 것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연구목적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진다

- 연구주제를 어떻게 좁혀 들어갈 것인가?
- 연구참여자의 범위, 명수 (표집대상) & 면담의 횟수
- 연구자와 참여자의 관계 형성 (라포 형성 -> 동반자적 관계)
- 면담 질문의 준비 (구조화된 질문 vs 반구조화된 리스트 작성)
- 질문지 사전 공개(X)

연구주제에 따른 면담 질문 만들기

질적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조용한 카페 등에서 만나 사전에 준비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면 어떤 동기로 춤추기 시작하였나요?”

“춤추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춤을 배우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였나요?”

연구주제에 따른 심층면담 후속 질문 던지기

심층 면담을 사용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면 춤추는 사람들이 내면에서 느끼는 감정과 관점 등 주관적 측면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가 외부 환경과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에 대한 인식과 흥미도에 대한 내적 외적인 요인을 탐색하면서 개별 연구참여자들을 충실하게 묘사할 수 있다.

자료의 정리와 분석 예시

매번 자료가 수집될 때마다 전사와 분석이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전사의 과정에서 심층면담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전사가 이루어졌는데, 전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전사 자료에 대해 반복적으로 읽으며 자료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이루어졌다.

질적 내용 분석의 경우

양적 내용 분석에서 질적 내용 분석으로 (코딩 vs 추출)

코딩의 한계점: 기존에 고안한 범주는 고정형이며, 텍스트(전사 자료)의 의미와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점 (40~50%)

따라서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의미를 수용하는 범주화의 유연성 필요

범주간의 관계성을 토대로 5-6개의 주제로 도출 바람직함

텍스트의 분석/해석 방법

실용적 절충주의에 기초한 포괄적 분석절차

단계	관계	세부적 분석절차 및 내용
1단계	↓	▪반복적인 자료 읽기/질적 자료 정리(관리)하기
2단계	□	▪분석적 메모 쓰기(연구자의 통찰과 반영성)
3단계	□	▪1차 코딩(코딩을 통한 코드와 범주의 초기 생성)
4단계	□	▪2차 코딩 (추가적 코딩을 통한 새로운 코드와 범주의 관계 파악)
5단계	□	▪3차 코딩 (최종적 코딩을 통한 범주들의 통합 및 문화적 주제 발견)
6단계	↑	▪연구결과 재현 (시각적 모형, 이론제시, 명제제시, 표, 그림, 내러티브)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에 대하여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면담해보기

심층 면담의 설계

1) 면담의 설계

1차 면담 질문

- 연구참여자의 삶의 배경, 현재 생활의 느낌, 연구주제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편안하게 대화를 진행함

2차 면담 질문

- 점차 연구주제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심층적인 내용을 후속질문으로 던짐

2) 리딩하는 문제

반발짝 참여자의 뒤에 서서 탐구의 방향을 제시하되 참여자가 스스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정도에서 질문을 살짝 던지는 기술이 필요함

3) 대화의 모드가 예상외로 침체되거나 대화가 끊어질 때

전사하기 방법

녹음기나 비디오테이프로 면담 녹화

응답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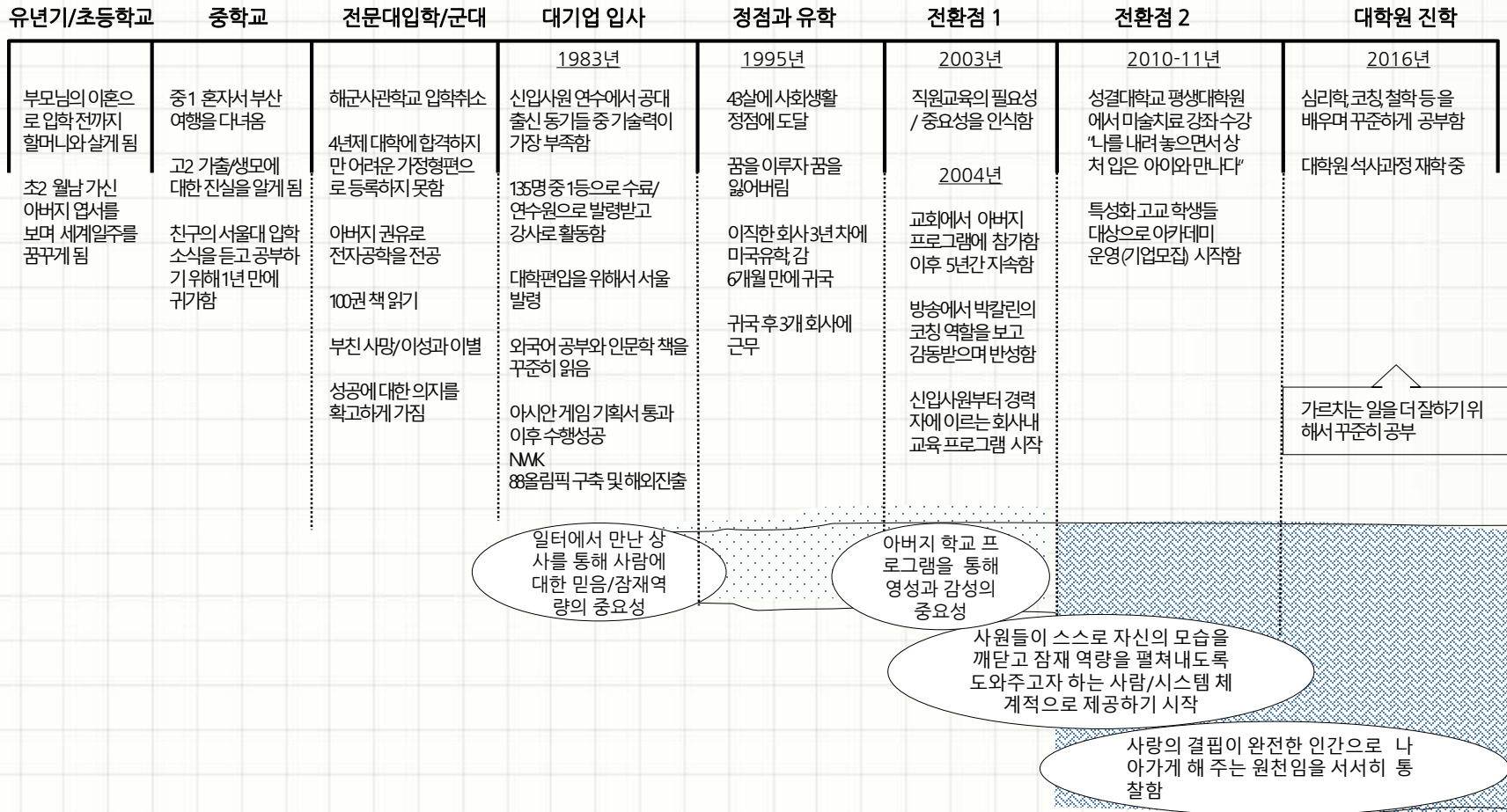
표준화 면담은 폐쇄형 질문으로 응답내용의 기록 용이

비표준화 면담에서는 응답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한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요 내용을 스케치한다

연구결과의 재현을 위한 대안적 표현기법과 글쓰기 전략

<타임라인 만들기 예시>

김준우



글쓰기

2-3명의 사례를 다루는 경우에 각각의 사례에 대한 초상을 읽는 독자가 그 사례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묘사하는 것이 좋다

마치 연구자의 눈으로 해석해 나가는 듯이 글쓰기를 할 때 독자들이 쉽게 공감하면서 읽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각 사례에 대한 묘사가 끝나면 사례간 고찰(cross case discussion)을 해 줌으로써 독자가 자연스레 사례간 비교를 하도록 글쓰기를 한다.

한 사례를 잘 이해하면 그것이 본질적으로 고유하지만 각 사례가 공통적인 부분을 보여 줄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에 관한 입지를 정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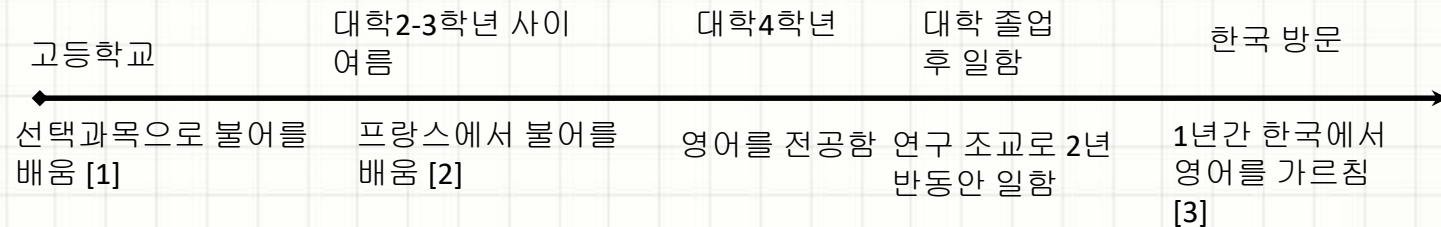
면담 자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스레드(이야기의 실타래)를 보면서 삼각측정법을 적용함으로써 타당성을 확보

초상화법의 수행 단계 예시

- (1) 면담을 통하여 연구참여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했으며 (언어에 대한 흥미가) 그녀의 삶 속에서 어떻게 부각되는지 어떻게 현재의 모습이 될 수 밖에 없는지를 탐구한다.
- (2) 면담을 진행하는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이 한편이 되어 좀 더 넓은 차원의 이상(진리, 사회의 선 등)을 탐구한다.
- (3) 순차적으로 3-4차례의 후속 면담을 실시하고 수잔의 삶 속에서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부각되는 측면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도록 노력한다.
- (4) 면담 오디오 중에서 “생생한” 단락을 찾아낸다. 이러한 단락은 연구참여자 (면담대상자)가 자신에게 뭔가 의미심장한 부분을 스스로 말하게 되는 부분이며 말하는 느낌의 흐름을 명확하게 드러내준다. 통상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거나 (unusual ways of saying something) 특이한 분위기(unusual mood)가 나타나면 이런 부분을 더 탐구할 필요가 있다.

초상화법의수행 단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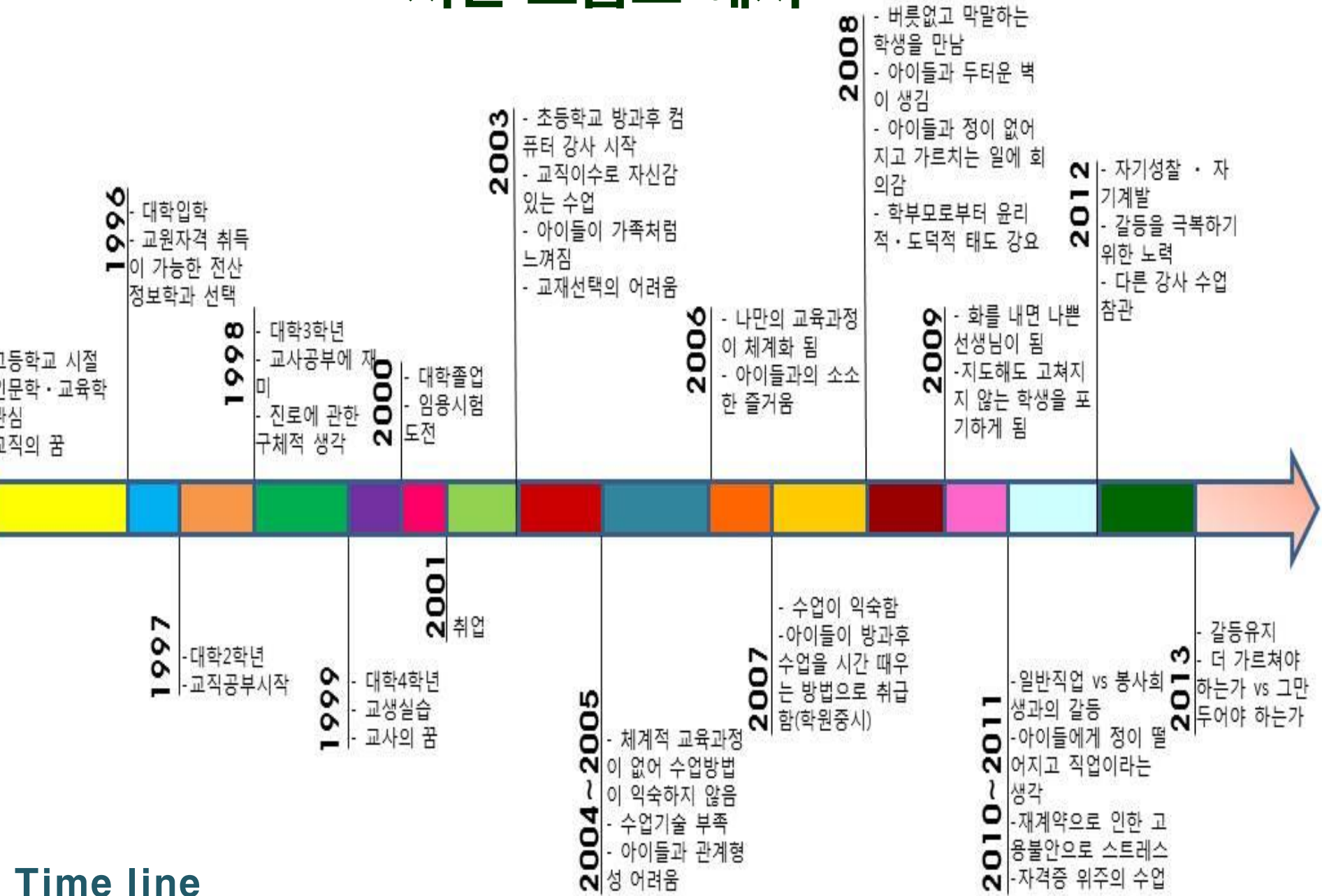
(5) 이러한 생생한 단락을 모두 시간 축 위에 투사시켜본다. 그런 다음 연구참여자의 삶 속에서 느낌, 동기, 성숙 등에 관한 변화 또는 진전이 있는지 살펴본다.



(6) 이러한 생생한 단락을 음미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차리도록 해 본다. 그리고 좀 더 세세하게 숙고해 본다(artic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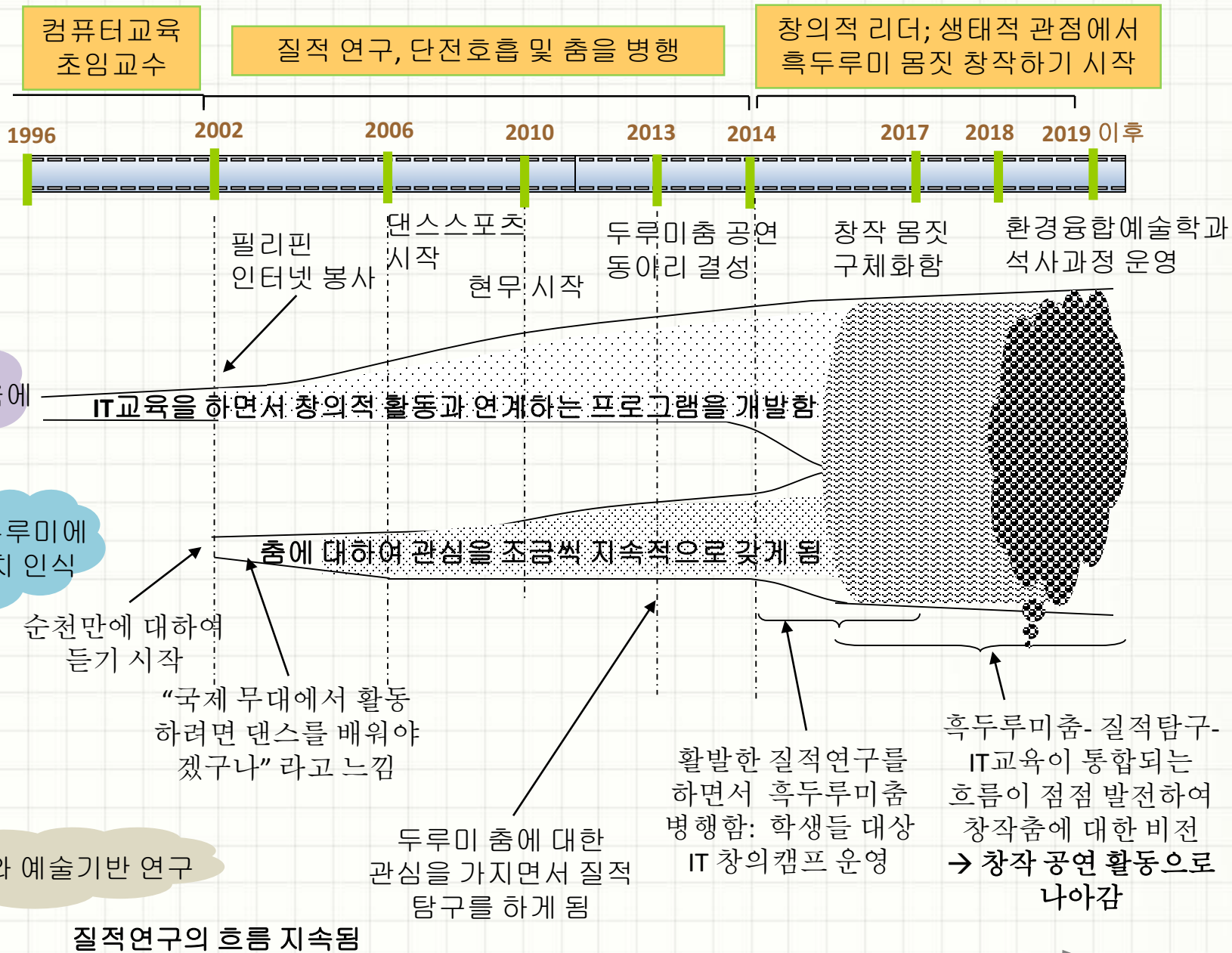
(7) 공명되는 부분을 더 찾아보고 여러 가지 뉘앙스를 지속시키며 새로운 측면을 통하여 이러한 변화 또는 진전(evolution)을 더 세심하게 숙고한다.

시간 흐름표 예시



Time line

전영국(2020) 자전적 사례 논문 시간흐름표 p173



초상화법의수행 단계 예시

(8)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전체 이야기의 이미지 또는 에센스를 세심하게 숙고한다.

(9) 연구 주제 또는 질문과 관련하여 다른 주요 측면이 있는가 살펴본다.

(10) 마침내 연구참여자에 관한 그림(이미지)이 떠오른다.

렘브란트 Van Rijn Rembrandt(1606~1669)

영적(靈的) 세계를 표출(表出)

자화상

SELF PORTRAIT

1657년경 板 油彩 49.2×41Cm

비인 미술사 발물관 소장



작품에는 제작 연도가 적혀 있지 않으나, 1657년 작이라는 연대 추정
이 확실하다면 이 초상화는 렘브란트의 나이 51세의 것이다. 이미 여
기에서는 젊은 날의 패기는 없으나 대신 당당한 원숙기의 한 화가의
모습이 유감없이 묘출(描出)되고 있다. 얼굴이며 어깨 부분이며 다갈
이 불굴의 의지에 넘쳐 있고 인간적인 시련을 겪은 한 인간의 의지가
넘치는 작품이다. 사실 1656년은 렘브란트가 파산 선고를 받은 해이
다. 그러한 경제적인 역경과 이에 따르는 갖가지 어려움을 렘브란트는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이 초상화는 극복의 의지가 정력적으로
보이는 마지막 초상화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 후의 초상화에서는 노
경(老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어느 전문가에 의하면 이 초상화가
그려진 이후의 렘브란트는 급속하게 늙어갔다.



비디오 활용 연구의 장점

- 교실 수업 관찰하기 좋은 도구
- 연구 참여자 관찰
 - 사용하는 단어나 상황에서 취하는 그들의 응답행위, 눈의 응시 방향, 머리를 끄덕이는 것과 같은 행동 등을 프레임별로 자세히 살펴 고유한 특성 파악
- 비디오 회상 인터뷰
 - 비디오를 보면서 그때 상황을 떠올리며 의문점들을 질문

비디오 기반 후속 면담

- 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연구참여자의 얼굴, 컴퓨터 화면, 손의 움직임 등이 잘 나올 수 있는 비디오 카메라의 각도를 찾는다.
- 필요하면 컴퓨터 화면을 동영상으로 캡처하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사용한다.
- 지난 번에 촬영한 비디오를 보면서 실시하는 비디오 기반 후속 면담을 할 경우에 같이 비디오를 보면서 면담을 나누는 상황을 별도의 비디오로 촬영한다.
- 지난 번에 촬영한 비디오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사하여 살펴보고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후속 질문을 통해 탐구한다.



무용분야의 질적 연구 관련 논문 리뷰

무용분야의 질적 연구: 예술 기반 연구

몸과 체화된 지식

면담, 관찰 자료 해석 => 안무

무용 공연으로 글쓰기 대신하다

참고문헌

- 양진예, 정효경, 한만석, “국내 무용학 영역에서의 질적연구 방법 분석,” 한국무용연구, 31(3), 2013:215-245.
- 한만석, 신주영, “무용학 질적연구의 주제 및 동향 분석,” 한국무용연구, 32(1), 2014:189-219.
- 김수인, “한국과 미국 무용학회지의 질적 연구와 학문적 글쓰기 동향 : 나와 본 연구자 사이,” 무용예술학연구, 49(4), 2014:21-45.
- 이유리, 이병준, “안무가들의 문화적 학습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한국무용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10(4), 2015:1-18.
- 이미희, “백사 정재만의 춤 생애사 연구,” 한국무용기록학 54, 2019: 163-190.
- 유미희,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본 한 교육대학 교수의 무용교수경험 탐구,” 무용예술학연구 60, 2016:109-122.
- 장지혜, 조기숙, “‘오딜’을 재해석한 무용작품 <나에게 스며들다>의 창작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기록학 27, 2013: 125-149.
- 김경은, “미국 대학생의 한국춤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州)의 대학을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 39, 2015:59-95.
- 김진주, “두 한국춤 예술가의 생애사에 나타난 춤 학습경험의 의미,” 질적탐구 6(2), 2020:55-91.

참고문헌

- Leavy, P. 예술기반 연구의 실제 (*Method Meets Art: Arts-Based Research Practice*, 2015). 김정희, 신승렬, 강병직 외 역, 서울: 학지사.
- Snowber, C. & Gerofsky, S. (1998). Beyond the span of my limbs: Gesture, number and infinity, *Journal of Curriculum Theorizing*, 15(2), 39-48.
- Migdalek, J. (2012). *Embodied choreography and performance of gend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eakin University, Melbourne, Australia.
- Leavy, P. (2018). *Handbook of Arts-based Research*. The Guilford Press.
- 전영국, “순천만 흑두루미춤을 추는 자전적 경험에 관한 예술 기반 탐구 사례,”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5(3), 2017:219-247.
- 전영국, “흑두루미춤 창작 동기, 과정 및 공연에 관한 자전적 사례 탐구,” 무용역사기록학, 57, 2020:219-247.
- 전영국, 이현주(2016),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초상화법 소개와 특징 고찰,” 교육문화연구 22(4), 2016:5-23.
- 이승현, 이경희, 전영국, “한 여학생이 남성복 디자인 전문가로 성장하는 거침에 귀 기울이게 된 계기 연구,” *진정탐구* 6(2), 2020:110-120.



질적연구 아틀라스: 열다섯 가지 성공전략

김영천 | 정상원 | 조재성 지음

2019 | 400쪽 | 28,000원

ISBN 979-11-964756-4-2



심층면담을 활용한 질적연구의 수행

전영국 지음

2019 | 272쪽 | 25,000원

ISBN 979-11-964756-4-2



감사합니다.

Q & A